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0. 7.(금)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 연정은 (jey0903@korea.kr) 사무관 유근정 (rmswjd90@korea.kr)

국제수지 대응방향

-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결과 -

- `22.10.7.(금) 09:30 대통령 주재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음
- 금일 회의에서는 9.30일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*를 바탕으로 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였음
 - * 기재부 차관보(반장) 下, 농식품부·산업부·해수부·금융위, 한은·금감원 등 관계기관 참여
 - 아울러,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경상수지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
- 정부는 금일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음
- ① 먼저 경상수지의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(既발표 대책 6건과 별도)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·추진할 방침
 - * 既발표 대책(6건):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(7월),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(8월),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(8월),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(8월),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(9월),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(9월)
- `22.8월 발표한 「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조선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 등 주요 수출업종(6개)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된 별도 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·시행

- 또한, `22.9월 발표한 「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」에 더해 소재·부품·장비, 식량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도 국내전환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
- 아울러, 그간 상품수지 흑자에 주로 의존해 온 우리 경상수지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광, 운송, 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련·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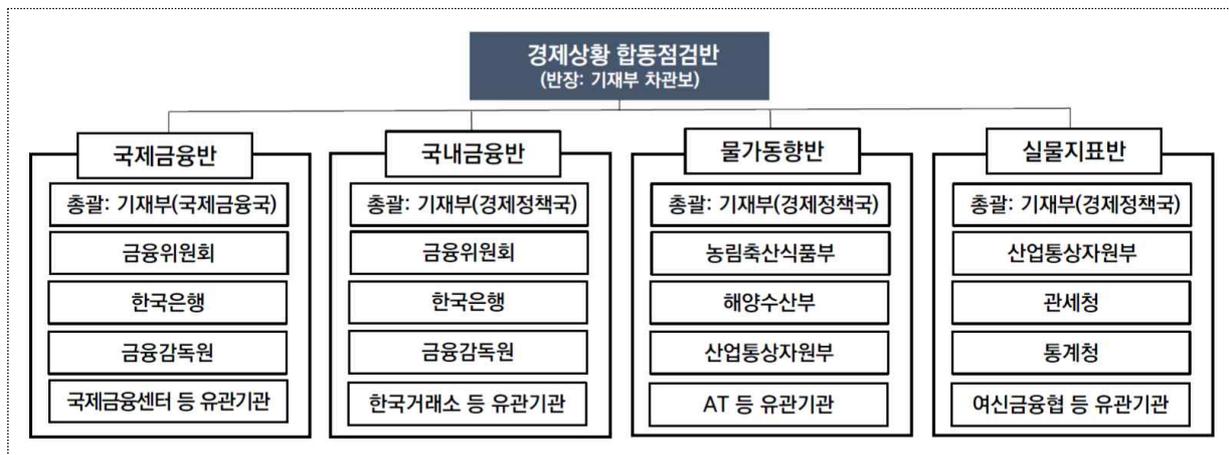
< 주요 대책 발표계획(안): 총24개(既발표 6개 + 신규추진 18개) >

구분	대책(안)		일정	주무부처	
상품수지	수출	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맵	반도체·자동차 기발표(`22.7, `22.9)	산업부	
			조선·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 `22.下~`23.上		
	수출	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	기발표(`22.8)	산업부	
		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	`22.下	중기부	
		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	`22.下	산업부	
	수입	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		기발표(`22.9)	산업부
		새정부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방향		`22.下	산업부
		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		`22.下	기재부·산업부 등
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		`22.下	농식품부		
서비스수지	건설	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	기발표(`22.8)	국토부	
	교부가	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	기발표(`22.8)	과기정통부	
	여행	관광산업 재도약 방안	`22.下	문체부	
	운송	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	`22.下	해수부	
	콘텐츠	디지털 미디어·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		`22.下	과기정통부
		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방안		`22.下	문체부
	IT	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	`22.下	과기정통부	
	지재산권	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	`22.下	특허청	
교부가	교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(연구개발·법률·엔지니어링 등)		`23.上	기재부 등	

※ 구체적 내용 및 일정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

- ② 또한,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,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노력 지속
- 외환당국(한은·기재부)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왑(총 100억불 한도),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(80억불 규모) 등 기존에 마련한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차질없이 집행
 - 향후 외환 수급여건과 유동성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,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
 - 이와 함께 유턴·외투 유치, MSCI·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
- ③ 향후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, 정부는 既 가동 중인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통해 각 부문별 동향과 불안요인 발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계획
- 관계부처·기관 합동으로 주요 지표를 24시간 상시 점검·일일 보고하고, 특이동향 발생 시 거시경제금융회의,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기에 신속히 대응

<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체계 >



[별첨: 국제수지 대응방향 주요 내용] p.4

[별첨: 신규 마련예정 대책(18개)의 주요 내용(안)]

※ 既발표 대책(6건):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(7월),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(8월),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(8월),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(8월),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(9월),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(9월)

① 상품수출 활성화(8건)

< 업종별 경쟁력강화 전략맵(6건)>

① (조선) 조선 시황 회복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

- 친환경·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및 액화 CO₂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지원 등 미래 선박시장 기술 초격차 확보
- 제도개선 중심 생산·기술 분야 종합적 인력확충, 생산 디지털화·자동화, 대내외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전후방·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등 생태계 경쟁력 제고
- 금융환경 개선, 중·소형선박 및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등 조선산업 수주경쟁력 강화

② (디스플레이)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1위 위상 확립

- 경쟁국의 도전과 시대 변화 대응을 위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, 기업의 OLED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로 세계시장 50% 점유
 - * (기술 초격차) OLED 제조·공정·소재 혁신,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대규모 예타 추진(1조 규모)
 - * (OLED 대중화)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, 투자 애로·환경규제 개선
-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고, 소부장 자립화 및 중소·중견기업 통합 지원 인프라 확충으로 튼튼한 후방산업 생태계 구축
 - * (생태계 강화)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, 소부장·장비 부분품 국산화 제고, 테스트베드 조성

③ (이차전지) 글로벌 공급망규제·기술경쟁 심화 등 최근 이차전지 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

-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,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, 배터리 초격차 기술확보 등을 위한 민간의 전략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발표

④ (바이오) 첨단 바이오 제조기술·인프라를 조속히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 및 기술주권 확보

- 민간의 투자 이행 촉진, 지능형 제조혁신,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국가로 도약
 - * 세포·유전자치료제 범용 생산기술 개발, 지능형 의약품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
- 바이오 기반 혁신 제품개발 등 바이오 기반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한 바이오경제 구현
 - * 소재·플라스틱·에너지 등 타 산업에 바이오 기반 기술 확산

⑤ (제조서비스*) 우리가 가진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, 서비스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 추진

- * 제조기업의 생산과정 혁신을 지원하거나, 제품에 서비스를 부가 또는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
- 제조엔지니어링, 모빌리티, 로봇,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기업간 협업*을 통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
 - * 기존 업종별 산업융합 얼라이언스를 "제조서비스 협업 얼라이언스"로 확대 개편
- 제조서비스 기술개발·규제개선 로드맵 수립, 공공부문 선도 초기수요 창출, 산업데이터 확보 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
 - * 정책 지원과제를 구체화하여, 연내 제조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

⑥ (섬유패션) 단기적으로 의류용 섬유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해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, 중장기적으로 고부가 산업용 섬유로 구조 고도화

- (친환경화) 친환경 섬유 시장 창출*, 친환경 기술개발** 및 공정혁신, 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그린 경쟁력 강화
 - * 수요기업의 친환경 섬유 사용 확대, 친환경 섬유제품 구매 촉진 및 사업화 지원 등
 - ** 대형 섬유 R&D 예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소재개발 및 재생기술개발 추진
- (디지털전환) 글로벌 패션테크 시장 선점*, 제조 현장의 지능화·자동화, 디지털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**
 - * 메타패션 제작 시범사업, 패션테크 클러스터 구축 등
 - ** 섬유패션 디지털역량센터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, 섬유패션+IT 융복합 인력양성 등
- (고부가화) 미래 핵심 수요산업에서 요구되는 고기능성 첨단 산업용 섬유소재 핵심기술 확보 및 자립화 추진

⑦ (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) 수출 중소기업 10만개社 달성 및 (가칭)수출 유니콘 1,000개社 육성, 온라인·소비재 등 中企 수출 특화분야 집중 지원

* 수출 1천만달러 이상 중소기업 수(개社): ('19) 1,981 → ('20) 1,897 → ('21) 2,262

▪ 온라인 수출 선도모델 발굴·확산, 뷰티·푸드·리빙 등 분야별 유망 소비재를 선별하여 전시회·상담회 참여 등 해외판로 지원 확대 등

*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수(개社): ('19) 1,060 → ('20) 1,634 → ('21) 3,141

⑧ (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) 친환경·헬스·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수출 집중 지원

▪ 한류와 연계한 특화 전시회 개최,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마케팅 강화

▪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소비재 수출지원 TF를 구축하고, 소비재 거점무역관*을 지정하여 현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**

* (중국) 항저우, 선전, 상하이 / (유럽) 프랑크푸르트, 함부르크 등

** 시장정보조사, 현지 전시회 참가지원, 현지 바이어·유통망 발굴 지원 등 업무수행

② 상품수입 국내 전환(3건)

① (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정책 개편) 공급망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, 요소와 같은 범용품·원소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·지원체계 구축 추진

▪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, 핵심 원소재·범용품을 별도 선정하여 관리 및 지원

▪ 미래 먹거리 관련 핵심기술 R&D를 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

② (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) 공급망 리스크 점검·지원 및 대응기반 구축,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

▪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국내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한 수입대체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

▪ 경제안보핵심품목 TF를 중심으로 핵심분야 및 취약품목 점검 강화, EWS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 범부처 공급망 위험 점검체계 고도화

- 위험포착-예방-대응 사이클의 체계화 및 민간 지원기반 마련 등을 위한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, 기금신설(정부보증채) 등 위기대응 기반 구축 추진

③ (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)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

- 수입 밀 대체를 위해 가루쌀¹⁾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²⁾하고, 밀·콩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공공비축 확대 추진

1) '가루쌀'이란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종류로서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어 제분 및 쌀 가공제품 등으로 활용시 밀 대체에 상대적으로 유리

2) 목표 생산량(천톤): ('22)0.5 → ('26)200, 재배면적(천ha): ('22)0.1 → ('26)42.1

-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설('23)하여 식량안보 중요 품목(가루쌀·밀·콩 등) 생산 농가에 재배 인센티브 제공

* (이모작) 동계(밀조사료)+하계(콩가루쌀) 250만원/ha, (단작) 밀조사료 50만원/ha, 콩가루쌀 100만원/ha

③ 서비스수지 구조적 개선(7건)

① (관광산업 재도약 방안) K-컬처와 어우러진 방한관광 매력 강화 및 관광산업 혁신,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통해 코로나 이후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 추진

- 한국방문의 해('23~'24) 등 K-컬처와 연계한 유치 마케팅을 적극 전개 하고, K-팝·드라마 등 한류 체험콘텐츠 개발 및 외래객 방한기반 개선*

* 무비자 입국 재개, 국제선 증편, 외래객 세제지원 지속 등

- 적극적인 규제개선, 기업 부담 완화 및 관광기업 육성펀드 5,000억원 결성 ('22~'27) 등 성장기반 확대, 의료·웰니스·MICE 등 융복합 산업 전략 육성

- 민·관협력 국내여행 인센티브* 도입, 지역에 살아가기형 관광, 워케이션**,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여행 수요 촉진 지원

* 정부, 금융기관, 관광기업, 지자체 등이 연계해 국내관광 촉진 관련 혜택 종합 지원

** 일+휴가(work+vacation)의 새 여행행태로, 국가·지역별 유치경쟁 심화, 기업 도입 확산 추세

② (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)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안전판 마련, 해운산업 성장기반 강화 등 추진

- 해운시황 분석·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선종·항로 등을 종합분석하여 시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,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해운 선사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운임정보를 제공
 -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을 위해 불황기 과다유휴 선박을 매입하여 국적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을 추진하고, 재무위기 선사 지원 등을 위한 ‘(가칭)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’ (5,000억원~1조원) 조성
 - 해운산업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친환경·디지털 전환 지원, 민간의 선박 투자유인 확대, 선·화주 상생·협력 강화 및 국적선사의 주요 항만 물류 터미널 확보 등 지원
- ③ (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) K-콘텐츠 수출 성장세* 지속을 위해 온·오프라인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한류 성과가 연관 소비재산업 동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류연계 홍보·마케팅 강화**
- * '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불이며 연평균('16~'20) 수출증가율은 18.7%(콘텐츠산업조사)
- 콘텐츠 수출 온라인플랫폼인 ‘웰콘’ 을 통해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상시 비즈매칭 제공, 종합 컨설팅 등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
 -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(현행 9개국 10개소 → '23년 13개국 15개소) 하여 현지 네트워크 확보·지원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
 - K-콘텐츠 연계 해외홍보관 운영, 한류 연계 홍보·마케팅 강화(B2B, B2C) 등을 통해 연관산업(식품·패션 등) 동반수출 추진
 - OTT콘텐츠 중소제작사 수요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및 수출용 OTT 콘텐츠 제작 지원* 등 OTT콘텐츠 해외진출 가속화
- * OTT를 통한 전세계 동시유통에 대응해 다국어화 등 '후반작업'에 대해 신규 지원
- ④ (디지털 미디어·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) 우리 디지털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실현하고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(①OTT, ②메타버스, ③크리에이터 미디어) 중심의 지원 전략 마련**
- (OTT) 첨단 ICT를 바탕으로 한 OTT 플랫폼·서비스의 고도화, 콘텐츠 IP 보유 제작사와 OTT 매칭 컨소시엄 대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- (메타버스) 메타버스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선도모델을 정립하고, 메타버스 방송 미디어 콘텐츠 지원 및 R&D·인재 양성 추진
 - (크리에이터 미디어) 유망 크리에이터 육성·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, 新 직업군 발굴 및 1인 미디어 창작 인프라 확충
- ⑤ (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) 디지털 경제·사회의 핵심 기반인 유·무선 통신 기반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향 제시**
- 6G·위성·양자 등 첨단 기술 선점을 위한 대규모·선제적 지원을 확대하고,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고도화로 촘촘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
 - * 6G 및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, 양자암호통신 고도화 등 예타 추진
 - 취약한 소부장 역량 강화 등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전·후방 산업 생태계 구축
- ⑥ (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 방안)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분야에서 원천·핵심특허 등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**
-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발굴 및 국가 연구개발(R&D)전략의 수립을 지원¹⁾하고, 공공특허기술의 이전과 지식재산금융²⁾을 확대하여 우수특허의 사업화를 지원
 - 1) ('22) 우주·항공, 디지털 헬스케어 등 → ('23)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 등
 - 2)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이 보증·담보대출·투자 실행
 - 또한,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(NPE)와의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조기경보* 체계를 구축하고, 분쟁 상황별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
 - * 반도체 등 40여개 기술분야의 분쟁위험등급을 4단계(심각→경계→주의→보통)로 경보
- ⑦ (고부가 전문서비스 발전전략) 연구개발·법률·엔지니어링 등 그간 만성적 적자가 고착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**
- * (예: 법률서비스) 인력양성·법제정비·인프라 구축 → 국제분쟁해결 중심지로 도약
 - ↳ 국제적 수준의 조정규칙 도입, 관련 국내법제의 국제규범 수준 정비, 국제상사조정 전문기관 확대 등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	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	연정은 (jey0903@korea.kr)
<경제상황>	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영훈 (044-215-2710)
		담당자	사무관	신동현 (shindonghyun@korea.kr)
<국제수지>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우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수 (pss3146@korea.kr)
	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봉덕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신연재 (syj1011@korea.kr)
	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강희민 (044-287-15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세웅 (loneilia@korea.kr)
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상문 (044-201-1810)
		담당자	사무관	신기태 (shinkt89@korea.kr)
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정현 (044-203-2811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훈 (jsh2828@korea.kr)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 장	허만욱 (044-200-5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호 (manghoku@korea.kr)
	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	책임자	과 장	신용식 (044-203-2381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필 (psp1024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은태 (044-202-6550)
		담당자	사무관	황동민 (hwangdm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성준 (044-202-6420)
		담당자	사무관	임재현 (limjh57@korea.kr)
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사무관	강희만 (huiman.kang@korea.kr)
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	책임자	과 장	문경호 (044-215-4610)	
	담당자	사무관	전성준 (sungking86@korea.kr)	
법무부 국제법무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현 (02-2110-3661)	
	담당자	사무관	임세영 (lsy302@korea.kr)	
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한창완 (02-2110-3331)	
	담당자	서기관	엄영신 (ysum125@korea.kr)	
<외환수급>	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재우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준 (cjeye86@korea.kr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심원태 (wtsim@korea.kr)